

지역지리적(地域地理的) 측면에서 본 지방지(地方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새로운 구성(構成)을 위한 방향 탐색 —

정 광 중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Local-
graphy from the Viewpoint of the Regional Geography

Jeong, Kwang-Joong

목 차

- I. 머리말 : 지역지리(地域地理, 地誌)의 구성상 특징
- II. 현대 지방지(地方誌)의 편찬에 따른 현시점에서의 문제점
- III. 다양한 형태의 지방지 작성을 위한 방향 탐색
- IV. 맺음말

I. 머리말 : 지역지리(地域地理, 地誌)의 구성상 특성

본고에서 지적하는 지역지리(약칭으로 지지[地誌])는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사실과 개성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지역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

* 이 논문은 2001년 2월 2일 역사문화학회가 주최한 《제1회 역사문화학회 워크샵》에서 필자가 발표한 주제인 「지역지리적 측면에서의 지방지 : 새로운 구성을 위한 방향 모색」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고 사실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리학의 한 분야」를 말한다¹⁾. 이러한 기존의 개념을 전제로 할 때, 지역지리적 측면에서 서술하는 지역지리서(地域地理書)는 한 지역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소들을 가능한 한 많이 도입하여 서술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다. 지리적 요소들이란 크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구성하는 (혹은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소들로 압축할 수 있다. 즉,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로는 위치, 지형, 기후, 토양, 식생, 동물, 수문(물) 등을 들 수 있고 인문환경의 구성요소로서는 인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조직, 자본, 교통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²⁾.

이러한 다양한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나 인문환경의 구성요소를 배경으로 한 관점에서 연구·정리된 지지서(地誌書)들은 연구범위가 적어도 국가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지역적(공간적)인 범위를 지니는 특징을 보이며, 동시에 지역적인 범위를 넓게 설정한 지지서일수록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구성요소들을 거의 망라한 형태로 작성되는 사례가 많다.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의 지지 서술방법은 광범위한 지역을 이해하는데는 나름대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³⁾.

그러나, 지방단위(행정구역으로 볼 때 시·도 이하의 지역단위)로 지역적인 범위가 좁혀질 때는 많은 한계점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다.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지지의 구성(편찬) 방법에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취급하는 공간적인 범위나 내용 속에 다루는 지리적 요소, 혹은 구성 방법론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⁴⁾. 따라서, 우선 지지서 작성을 전제로 할 때 구성 방법론적 차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택된 지역적(공간적)인 범위와 더불어 내용 속에 주요 골격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요소들의 취사선택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흔히 일컫는 오늘날의 지방지(地方誌)⁵⁾의 편찬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상의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의 지방지들이 편찬돼 온 동향과 문제점들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전망해 보고, 아울러 새로운 지방지의 구성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1) 山崎謹哉編, 1982, 『地域の地理學』, 古今書院, p.19.

2) 築山治三郎·岸本 實·位野木壽一, 1974, 『人文地理學』, 創元社, p.20.

3) 長谷川典夫, 1994, 『地誌學研究』, 大明堂, pp.8~17.

4) 長谷川典夫, 1994, 『前掲書』, pp.8~9.

5) 여기서는 파급되는 논의를 막기 위해, 지방지의 개념을 임의적으로 "지역의 한 단위로서 시·도 이하의 행정구역을 범위로 하여 구성된 지지(地誌)의 한 부류"로 정의해 두기로 한다.

〈표 1〉 지역지(地誌)의 분류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른 분류	지리적 요소에 따른 분류	방법론 등에 따른 분류
세계지(世界地誌)	지질지(地質誌)	경관론(景觀論)
광역지(廣域地誌)	지형지(地形誌)	계통적지(系統的地誌學)
대륙지(大陸地誌)	기후지(氣候誌)	동태적지(動態的地誌學)
국가지(國家地誌)	산업지(産業誌)	종합적지(綜合的地誌學)
지방지(地方地誌)	인구지/호구지(人口誌/戶口誌)	지역론(地域論)
도시지/촌락지(都市誌/村落誌)	문화지(文化誌)	통역론(統域論)
	민속지(民俗誌)	
	종합적 지(綜合的 地誌)	

(자료 : 長谷川典夫, 1994, 『地誌學研究—地誌作成法とその實例—』, 大明堂(日本: 東京), p.10.)

II. 현대 지방지의 편찬에 따른 현시점에서의 문제점

그 동안 한국의 현대 지방지의 편찬에서는 대부분 기존에 특정지역에서 작성된 지방지의 사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여러 지방지가 내용 구성면에서 대동소이한 형태를 띠며, 지역간에 개성을 찾아볼 수 없는 지방지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말하자면, 지방지마다 새로운 구성상의 특징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지역이 다른 만큼 내용도 달라진다는 단순한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한국에서 작성된 최근의 지방지, 가령 제주도를 사례로 든다면, 제주도지(濟州道誌)를 선두 주자로 하여 북제주군지, 서귀포시지, 기타 읍·면지나 마을지 등 대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지리, 역사, 정치, 행정, 산업경제, 교육, 종교와 민속신앙, 문화유적(관광자원), 인물 등을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하여 작성하는 방법을 보이고 있다([자료 1], [자료 2], [자료 3])

이에 반하여 지리학 분야와 같이, 일부 학문분야에서는 나름대로의 관련요소나 지표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자료 4-1, 4-2]).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지지서와 지리학 분야에서 저술되는 지지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기본적인 요소로 활용하면서도 지역

적 특색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구분 방법을 활용하느냐 또는 활용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지지서이든 또는 특정학문 분야에서 저술하는 지지서이든 간에, 실제의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구성요소를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자료 1]~[자료 3]과 같은 목차로 구성된 지지서들은 <표 1>에 나타난 여러 유형의 지지서와 연관지어 본다면,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른 분류에서는 「지방지지(地方地誌)」의 성격을, 그리고 지리적 요소에 따른 분류에서는 「종합적 지지(綜合的地誌)」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제주도지나 읍·면지 또는 특정 마을의 마을지들은 내용구성에서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 새로운 관점에서의 지방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심지어는 다루는 내용의 구성요소가 비슷한 나머지, 지역적인 범위에 관계 없이 내용의 주된 흐름도 거의 동일하거나 반복적인 서술로 나타나는 폐단을 모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배경은 여러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세 가지만 지적할까 한다. 먼저, 지방지의 편찬에 따른 집필자들의 양식(良識)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지방지의 집필자는 크게 비전문가 그룹(향토사가, 행정공무원, 일반교사, 해당지역 거주자[지역유지나 관련인사] 등)과 전문가 그룹(주요 지지작성 요소[또는 주제]와 관련되는 특정 학문분야의 연구자, 학위 소지자 등), 그리고 비전문가 그룹과 전문가 그룹이 결합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집필자들의 수준에 따른 문제는 차치해 두더라도, 지금까지의 여러 사례에서는 비전문가 집단이든 전문가 집단이든 지방지의 전체구성에 대한 새로운 틀(형태)을 창조해 내는 데는 그다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채, 기존의 틀을 다소 변경하거나 또는 기존의 틀을 토대로 양적인 구성에만 치중해 왔다는 점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타지방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주요 구성항목을 취사선택하는 관행적 습관이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결국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물론 이점은 순기능과 역기능이란 양면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논할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 논점으로 삼고 있는 '새로운 구성형태의 지방지'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미 정해진 코스로 안전운행만을

[자료 1] 도지(제주도지, 1993년도판)의 사례(목차)

〈제1권〉

제1편 자연적 기초	제1장 선사시대
제1장 지세	제2장 고대사
제2장 지질	제3장 중세사
제3장 기후	제4장 근세사 전기
제4장 생물	제5장 근세사 후기
제5장 인구와 취락	제6장 최근세사
	제7장 일제침략사
제2편 역 사	

(주 : 절 항목 이하는 생략하였음.)

(자료 : 제주도, 1993, 『제주도지』(제2권), 제주도.)

〈제2권〉

제3편 정치·행정	제11장 관광·서비스업
제1장 정치	제12장 통신
제2장 일반행정	제13장 교통
제3장 사법	
	제5편 사회
제4편 산업·경제	제1장 제주사회·제주인
제1장 경제개발계획과 지역종합개발	제2장 가족과 친족
제2장 지역경제개발	제3장 마을
제3장 농업	제4장 사회복지
제4장 산림업	제5장 보건·의료
제5장 축산업	제6장 노동조합·노동운동
제6장 수산업	제7장 사회운동·사회단체
제7장 상공업	제8장 여성
제8장 수출	제9장 해외동포
제9장 재정·금융	제10장 국내도민회
제10장 전력	

(주 : 절 항목 이하는 생략하였음.)

(자료 : 제주도, 1993, 『제주도지』(제2권), 제주도.)

〈제3권〉

제6편 교육·문화·체육	제3장 세시풍속
제1장 교육	제4장 민속놀이
제2장 문화	제5장 생산기술
제3장 예술	제6장 민속공예
제4장 학술	제7장 민구
제5장 언론	제8장 민간신앙
제6장 출판	제9장 무속
제7장 체육	제10장 방언
제8장 종교	제11장 민요
	제12장 설화
제7편 민속·언어전승·문화재	제13장 속담·기타
제1장 의·식·주	제14장 문화재
제2장 통과의례	

(주 : 절 항목 이하는 생략하였음.)

(자료 : 제주도, 1993, 『제주도지』(제2권), 제주도.)

[자료 2] 읍지(애월읍지, 1997년도판)의 사례(목차)

제1편 애월읍 개요	제3장 고내, 상가, 하가
제1장 연혁	제4장 신업, 중업, 구업, 용흥
제2장 자연환경	제5장 하귀 1, 하귀 2, 상귀, 수산
제3장 읍현황	제6장 소길, 장전, 유수암
제4장 행정	제7장 고성, 광령 1, 광령 2, 광령 3
제2편 산업경제	제5편 각종기관, 학교, 금융계, 종교계, 각종단체
제1장 농업	제1장 각종기관
제2장 축산업	제2장 학교계
제3장 수산업	제3장 종교계
제4장 상공업	제4장 각종단체
제3편 복지·관광·문화사업	제6편 세시풍속·전통놀이·제주속담·방언
제1장 복지사업	제1장 세시풍속
제2장 관광산업	제2장 전통놀이
제3장 문화산업	제3장 제주속담
제4편 각리 약사 및 현황	제4장 방언
제1장 애월, 락지, 금성	제7편 기타
제2장 봉성, 어음 1, 어음 2, 납읍	

(자료 : 애월읍지편찬추진위원회, 1997, 『애월읍지』, 애월읍.)

[자료 3] 마을지(한림읍 명월리, 2003년판)의 사례(목차)

I. 마을개관	3. 신앙
1. 자연환경	
2. 실촌 유래와 지명	VI. 구비전승
II. 마을의 역사	1. 우리 마을에 전해오는 전설
1. 고대의 명월 마을	2. 민요
2. 고문서	3. 언어
3. 비석	4. 속담 / 금기어
4. 1910년 이전의 명월 마을	VII. 마을 공동체
5. 1910년 이후의 명월 마을	1. 역대 향장 명단
III. 행정·교육	2. 역대 이장 명단
1. 행정	3. 향악
2. 교육	4. 사회단체
IV. 의식주와 생업	5. 친목단체
1. 의식주	6. 작목반
2. 생업	VIII. 마을 사람들의 행적과 동정
V. 신앙과 민속	1. 돌아가신 분의 행적
1. 생활풍습	2. 생존자의 동정
2. 민구	■ 부록

(자료 : 明月郷土誌 編纂委員會, 2003, 『明月郷土誌』.)

[자료 4-1] 지리학 분야의 지지서(한국지리, 총론편, 1996년도판, 법문사)의 사례(목차)

제1편 자연환경	2. 어장과 어업구조
제1장 위치·영역·민족	3. 연근해어업·원양어업·천 해양식업·내수면어업
1. 위치	4. 수산가공업
2. 영역	5. 천일제염
3. 한민족과 한국어	제9장 광업과 에너지자원
제2장 지 질	1. 광물자원의 부존
1. 한반도 주변의 지질	2. 조선시대와 일제하의 광업
2. 지체구조	3. 해방후의 광업
3. 암석의 분포	4. 에너지자원
4. 지질구조선과 지형	제10장 공 업
제3장 지형과 해안	1. 전통수공업
1. 산지	2. 해방전의 공업
2. 하천과 평야	3. 해방후의 공업
3. 해안	4. 주요 공업
4. 해양	5. 공업지역
제4장 기 후	제11장 유통과 관광산업
1. 기후의 특색	1. 교통
2. 기온	2. 상업과 무역
3. 강수량	3. 관광산업
4. 기타 기후요소	
5. 계절	제3편 인구·취락·국토개발
6. 기후구	제12장 인 구
제5장 식생과 토양	1. 인구증가
1. 식생	2. 인구의 지역별 증감
2. 토양	3. 인구구조
	4. 인구분포와 인구밀도
제2편 산 업	제13장 가옥과 촌락
제6장 농업	1. 가옥과 환경
1. 농업의 발달	2. 가옥의 구조
2. 농업의 생산기반	3. 촌락의 형태
3. 농업의 형태	4. 취락의 입지와 기능
4. 농작물의 생산	5. 동족촌
5. 축산과 양잠	제14장 도 시
6. 농업지역	1. 조선시대와 해방전의 도시
제7장 임업	2. 해방후의 도시
1. 임업과 신탄	3. 도시의 기능
2. 일제의 삼림수탈	4. 도시의 형태와 경관
3. 삼림의 육성	제15장 국토개발
4. 임산물	1. 조선시대와 그 이전의 국토개발
제8장 수산업과 천일제염	2. 일제하의 국토개발
1. 어업의 발달	3. 1960년대 이후의 국토개발

(자료 : 권혁재, 1996, 『한국지리』(총론편), 법문사.)

[자료 4-2] 지리학 분야의 지지서(한국지리, 지방편, 1995년도판, 법문사)의 사례(목차)

제1편 서울·인천과 경기도	제2장 북서평야지방
제1장 자연과 인문환경	제3장 동부산간지방
제2장 서울	
제3장 인천과 서울 주변의 도시	제6편 광주·전라남도
제4장 북서임해지방	제1장 자연과 인문환경
제5장 북동내륙지방	제2장 광주와 영산강유역의 내륙지방
제6장 남동내륙지방	제3장 남서임해지방
제7장 남서임해지방	제4장 섬진강유역과 남동임해지방
제2편 강원도	제7편 대구·경상북도
제1장 자연과 인문환경	제1장 자연과 인문환경
제2장 영동지방	제2장 대구와 남동내륙지방
제3장 영서북부지방	제3장 북동내륙지방
제4장 영서남부지방	제4장 북서내륙지방
	제5장 남서내륙지방
제3편 충청북도	제6장 중부내륙지방
제1장 자연과 인문환경	제7장 동해안지방
제2장 북부지방	
제3장 중부지방	제8편 부산·경상남도
제4장 남부지방	제1장 자연과 인문환경
	제2장 부산과 동부임해지방
제4편 대전·충청남도	제3장 서남해안지방
제1장 자연과 인문환경	제4장 중부내륙지방
제2장 아산만지방	제5장 서북산악지방
제3장 서해안지방	
제4장 중남내륙지방	제9편 제주도
제5장 대전과 남동내륙지방	제1장 자연과 인문환경
	제2장 북제주지방(제주·북제주)
제5편 전라북도	제3장 남제주지방(서귀포·남제주)
제1장 자연과 인문환경	

(자료 : 권혁재, 1995, 『한국지리』(지방편), 법문사.)

고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비전문가 집단일수록 그런 경향은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집필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필자 개개인은 서로가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지방지의 구성에는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는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집필자수가 많으면, 지방지의 내용이 양적·질적으로 풍부해 질 수 있다는 조건은 되지만, 실제로는 할당된 원고 분량이나 혹은 정해진 시일에 원고를 맞추기에 급급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었다.

두 번째는 지방지의 편찬주체(編纂主體) 및 시기(時期)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학술적 차원의 필요에 따르기보다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지방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도 작성시점이 '몇 주년 기념사업'이나 '시·도 승격 기념사업' 혹은 앞서 발행한 지방지가 10년, 20년, 30년 등 일정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작성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항상 다른 시·도의 사례나 기존에 발행되었던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집필하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날짜에만 신경을 곤두세워 작성하고 있다는 점도 구습(舊習)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절실히 대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방지의 편찬을 위한 경비확보(經費確保)에 따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지적한 문제와도 많은 관련성을 맺고 있으나, 보다 미래지향적인 지방지의 작성을 위하여 지원단체나 스폰서를 구하는 격이 아니라, 항상 시·도·군청 등 특정기관에 의해서만 모든 경비가 조달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일선의 전문가 집단의 책임도 한층 부각될 수밖에 없다. 즉,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편찬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지방지의 편찬과 관련되는 연구(작업) 자체가 자신의 업적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더불어 지방지 자체가 현 세대가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정보지(情報誌)라는 사실도 그다지 높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연구자 자신의 자발적인 연구의욕에 따른 집필활동은 극히 의례적이거나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가 현실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한, 현대의 지방지가 앞으로 참신한 내용구성을 토대로 현세대와 미래의 세대가 동시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지로 탈바꿈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Ⅲ. 다양한 형태의 지방지 작성을 위한 방향 탐색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동반하는 지방지의 출현을 기대하며, 나름대로 필자가 생각하는 새로운 지방지의 형태를 몇 사례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소지역 단위(가령 제주도의 마을 단위)의 생활지(生活誌)

1980년대 중반 이후 제주도에서는 마을단위의 지방지, 즉 마을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⁶⁾. 이 마을지들도 대부분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전체적인 구성체계에서는 제주도지나 그 외 군지 및 읍지와도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해당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정시점에서 해당마을 주민들의 생활문화(생활상)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생활지가 중요하리라고 생각된다. 마을의 구성주체가 마을주민이라면, 마을주민들의 평상시의 일상생활이 어느 한 시점에서는 중요한 시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2004년 시점의 A마을' 주민들의 생활문화는 10년 후나 100년 후는 크게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여기서 생활문화의 한 단면은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화라 해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 A마을 주민들이 먹는 음식, 입는 옷, 사는 집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하여 일정시점에서의 문화적 행위(행동)에 대한 한 단면을 정리해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의식주라 해도 여기에 관련되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선택된 A마을에서 어느 가정의 아침·점심·저녁의 하루 식단표를 정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식단에 나오는 재료들의 출처에 대해 자가 생산물인지, 시장으로부터의 구입품인지의 여부를 밝힐 수 있다. 나아가 자가 생산물이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 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구입품은 마을로부터 어느 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지, 또한 그 시장은 언제부터 이용해 왔는지 등, 정해진 요소 하나를 통해 계속 확대시켜 주민의 생활상을 추적할 수 있다.

마을단위로도 정리를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다. 가령, A마을의 주거형태를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단독주택의 경우는 가옥의 외부경관 중 지붕의 형태가 초가, 슬레이트, 기와, 함석, 양옥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각 재료의 구입형태나 실제상의 작업방법이나 순서

6) 제주도에서도 최초의 마을지는 1985년에 발행된 '도두리지(道頭里誌)'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오성찬(소설가, 도서출판 반석 대표)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연구진과 집필진에 의해 '제주의 마을' 시리즈로 기획·집필된 것이다(오성찬, 2001, 「'제주의 마을' 시리즈에 대한 회고」, 『지방지 편찬의 새로운 방향 모색』(제1회 역사문화학회 워크샵 요지문), pp.75~78.).

등과 관련되는 내용도 필요한 요소로 설정할 수 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소지역 단위의 주민들에 대한 생활문화 중심의 생활지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지방지의 한 형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2. 향토비교(郷土比較) 중심의 향토비교지(郷土比較誌)

이미 지적하였듯이, 한국 지방지의 경우는 공간적인 범위가 해당 시·도·군·읍(면)의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행정구역에 대한 지방지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정기적으로 새로운 내용과 항목이 추가되어 재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지역간(행정구역간)이나 성격적으로 유사한 지역(가령, 어촌이 주를 이루는 읍·면간, 인구규모가 비슷한 중소도시간, 도서 지방간)에 대한 비교시점의 지방지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서 향토(local community area)는 일상생활이 행해지는 공간적 범위로서 1차적인 공동체 지역(primary community area)을 말하며⁷⁾, 행정구역상으로는 읍·면 단위나 군 단위의 범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비교 중심의 향토비교지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다소 범위를 확대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하는 시점이나 같은 군지역(郡地域)이지만 동서로 양분되어 있는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에 대한 비교형태의 지방지, 즉 북제주의 동서지역 비교지, 남제주의 동서지역 비교지, 혹은 북제주와 남제주의 비교지 등에도 주목할 수 있다. 좀 더 확대하자면, 국제적으로 같은 도서지역이면서 관광지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의 제주도와 일본의 오키나와(沖縄)를 특정 관점에서 비교하는 형태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향토비교 중심의 향토비교지의 작성에는 어떤 요소와 시점을 도입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3. 특정 주제(요소) 중심의 지방지

아직도 한국의 지리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지리적 요소를 망라하는 형태의 지리지

7) 任德淳, 2000, 『地理教育原理(제2판)—理論과 適用—』, 法文社, p.109.

작성(종합적 지지)에는 크게 몰두해 왔으나, 특정주제를 배경으로 한 지지서 작성에는 소홀한 면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미 발행된 여러 지방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지의 새로운 구성형태에는 특정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형태의 지방지의 작성에서는 반드시 한 가지의 주제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나, 가급적이면 깊게 연관되는 한두 가지의 주제에 한정시키는 것이 기존의 종합적 지지형태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주제를 한두 가지로 한정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주제에 대해 정밀하면서도 고차원적인 정보를 주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방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표 1>의 지리적 요소에 따른 지지의 분류를 참고로 하면, 제주도에서는 「지형·지질지」, 「지형·기후지」, 「산업지(감귤산업·관광산업 등)」, 「민속·문화지」, 「언어·문화지」 및 「인구지」 등은 충분히 좋은 사례로 조사·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형태의 지방지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변화적 양상이 충분히 반영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맺 음 말

새로운 형태의 지방지를 작성하는 데에는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2001년도 「제1회 역사문화학회 워크숍」에서 논의된 “지방지 편찬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란 주제⁸⁾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역지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의 지방지는 그것이 취급하는 지역적인 범위가 넓거나 좁건 간에, 일정지역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역 정보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작성하려는 관점이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8) 그 당시 문화역사학회가 주최한 워크숍에서는 크게 3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부의 주제는 “역사속의 지방지 편찬”으로 5명의 연구자가 발표했으며, 제2부에서는 “현대 지방지 편찬의 평가와 과제 : 지역단위별 지방지 사례”라는 주제로 6명의 연구자가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3부는 “현대 지방지의 평가와 과제 : 지방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모두 9명의 연구자가 발표하였다.

끝으로,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로, 새로운 지방지(마을지 포함)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행정편이로 설정된 형식 지역인 행정구역의 경계선을 과감히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점은 필요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위주로만 지역적(공간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구성방법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애당초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의 구성 요소가 행정구역의 범위를 바탕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로, 지방지의 작성에 참가하는 연구자들이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현실적으로 지방지의 편찬주체인 여러 행정기관과 관련되는 문제가 많이 내재되어 있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에만 의존해서는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지방지의 작성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지방지의 작성에 임하는 연구자들이 새롭고 질 좋은 정보지를 생산한다는 마음가짐은 곧 새로운 형태의 지방지를 거두어들이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하겠다.

셋째로, 기존 지방지의 편집구성을 탈피하기 위한 의견수렴과정이 특정학회 차원이든 아니면 연구회 차원에서든 자주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지 작성을 위한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경비확보(조사·발행 비용 등) 문제를 비롯하여, 작성 전 단계에서의 집필진 구성문제나 적절한 집필기간 등도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